

취업자 수 증감의 원인 및 전망

오상봉(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)

- ◎ 2016년 3월에 취업자 수는 30만 명 증가
 -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감소폭 축소와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 소폭 확대의 영향으로 지난달보다 취업자 증가폭 확대
- ◎ 고용률은 0.2%p 증가하였는데, 이는 여성 고용률 증가의 영향임
 - 여성 고용률은 0.4%p 상승하였으나, 남성 고용률은 0.2%p 하락
- ◎ 2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였으나, 50대 고용률은 하락
 - 청년 고용률은 41.0%로 전년동기대비 1.0%p 상승하였으나, 실업률은 11.8%로 전년동기대비 1.1%p 상승하였음
 - 20대 초반 졸업생의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였으나, 20대 후반 졸업생의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크게 상승하였음
 - 50대는 남성 고용률 전년동기대비 1.2%p 하락으로 전체 고용률이 0.5%p 하락하였는데, 남성 고용률 하락의 주 원인은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에 있음
- ◎ 상용직은 크게 증가하였으나,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크게 감소
 - 농림어업 감소폭 축소의 영향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감소세는 약화되었으

나,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

- ◎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며, 농림어업의 취업자 감소는 축소되었지만 건설업 취업자 감소폭은 확대되었음
 - 전자부품 등의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조금 확대
 - 전자 및 화학산업에서 고용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올림픽과 건설경기 호조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됨
 - 인쇄업 취업자 증가폭도 확대되었는데 선거의 영향으로 보임
 - 최근의 추세와 달리 기타 운송장비의 취업자는 감소하였음
 - 영세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런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 - 도소매업,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고용 부진에도 음식숙박업,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, 보건복지업 등의 취업자 증가폭 확대로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세가 유지됨
 - 도소매업에서는 도매업과 소매업의 고용 감소 양상이 다른데, 도매업의 경우에는 상용직을 포함한 임금근로자가 주로 감소하고, 소매업의 경우에는 상용직을 제외한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가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, 도매업의 경우에는 10~299인 사업체에서 고용이 줄어들지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고용이 줄어들
 -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업의 고용 감소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큼
 - 금융업의 경우 은행과 보험업의 고용 감소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서비스업의 영업직 증가로 감소폭이 크지 않음
 - 건설업의 경우 경기호조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업과 전문직별 공사업의 취업자 증감 추세가 계속해서 정반대로 움직이면서 취업자 감소폭 확대
 - 농림어업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감소폭 축소와 일용직 증가로 감소폭 크게 축소
 - 감소폭이 축소되는 추세는 유지되겠지만, 2016년 3월 정도의 감소폭이 유지될지는 불확실함

- ◎ 종합하자면, 3월에는 2월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향후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